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CATI & ARS

제77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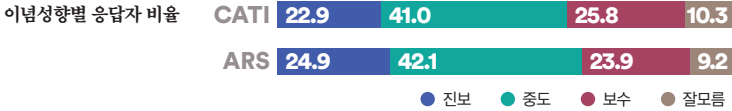
제92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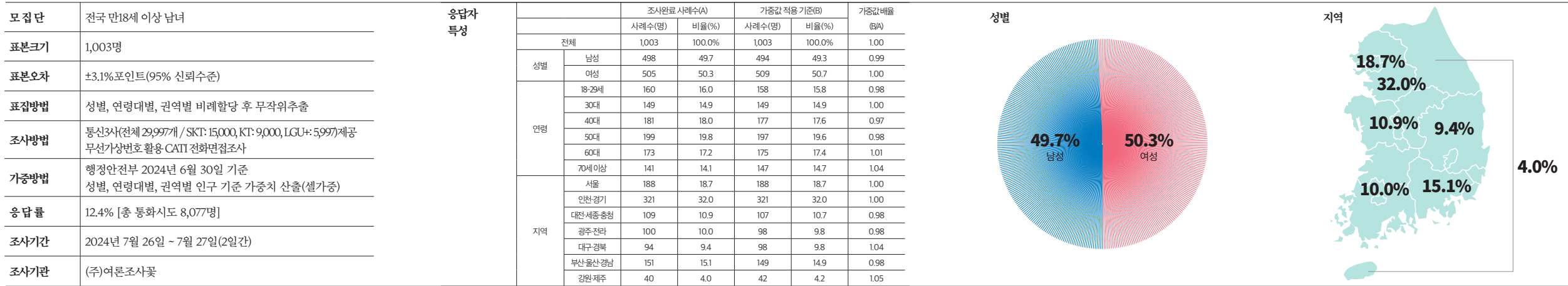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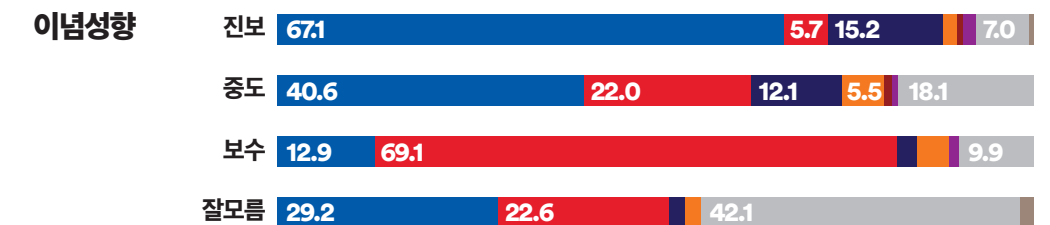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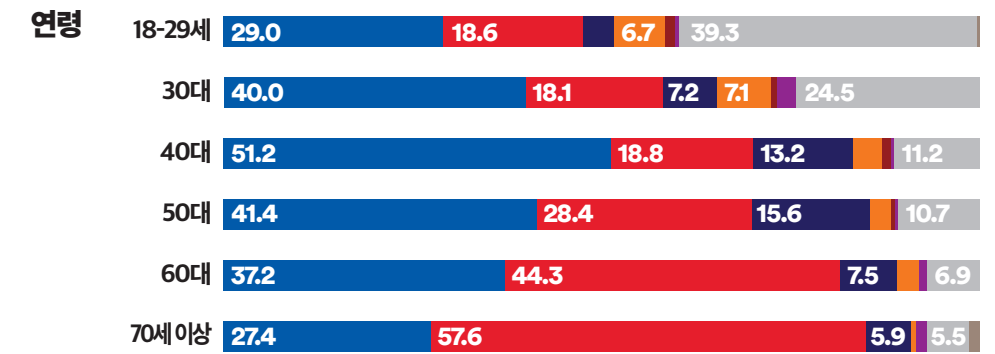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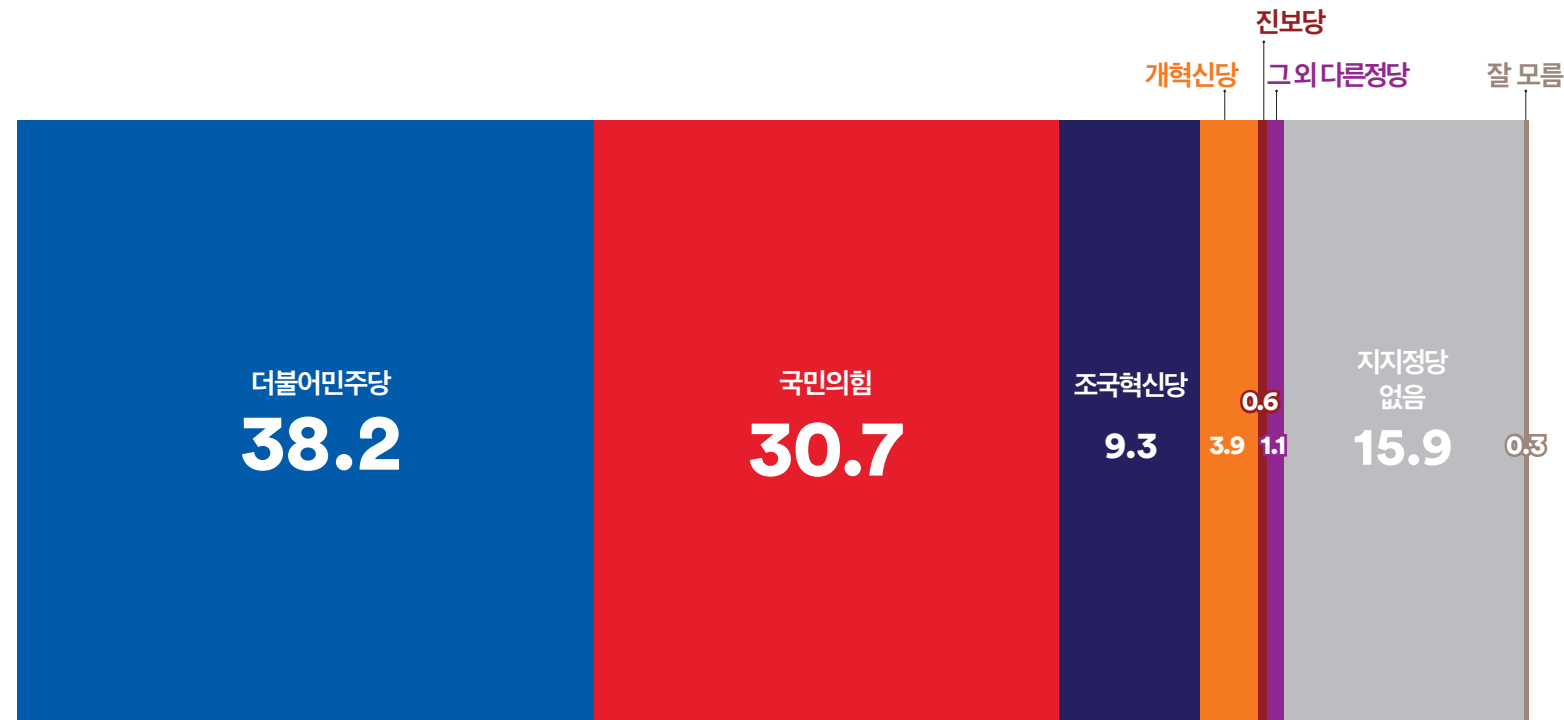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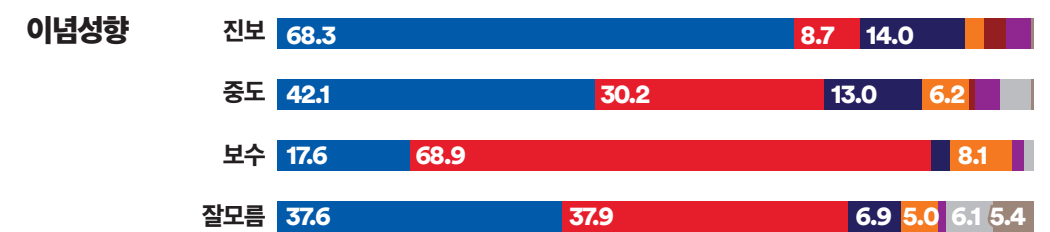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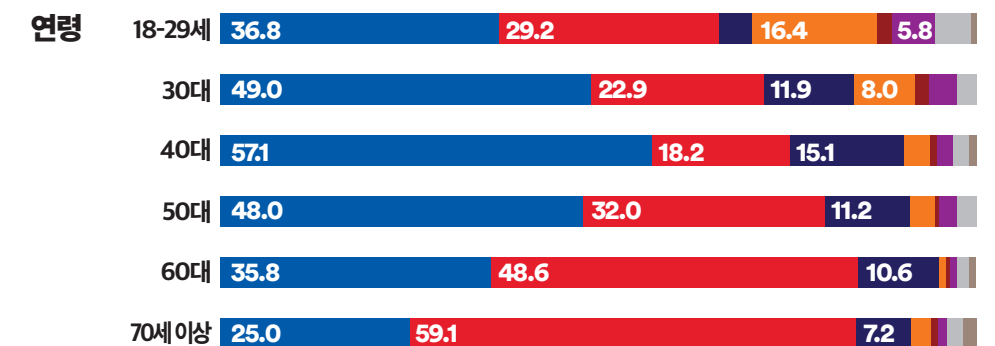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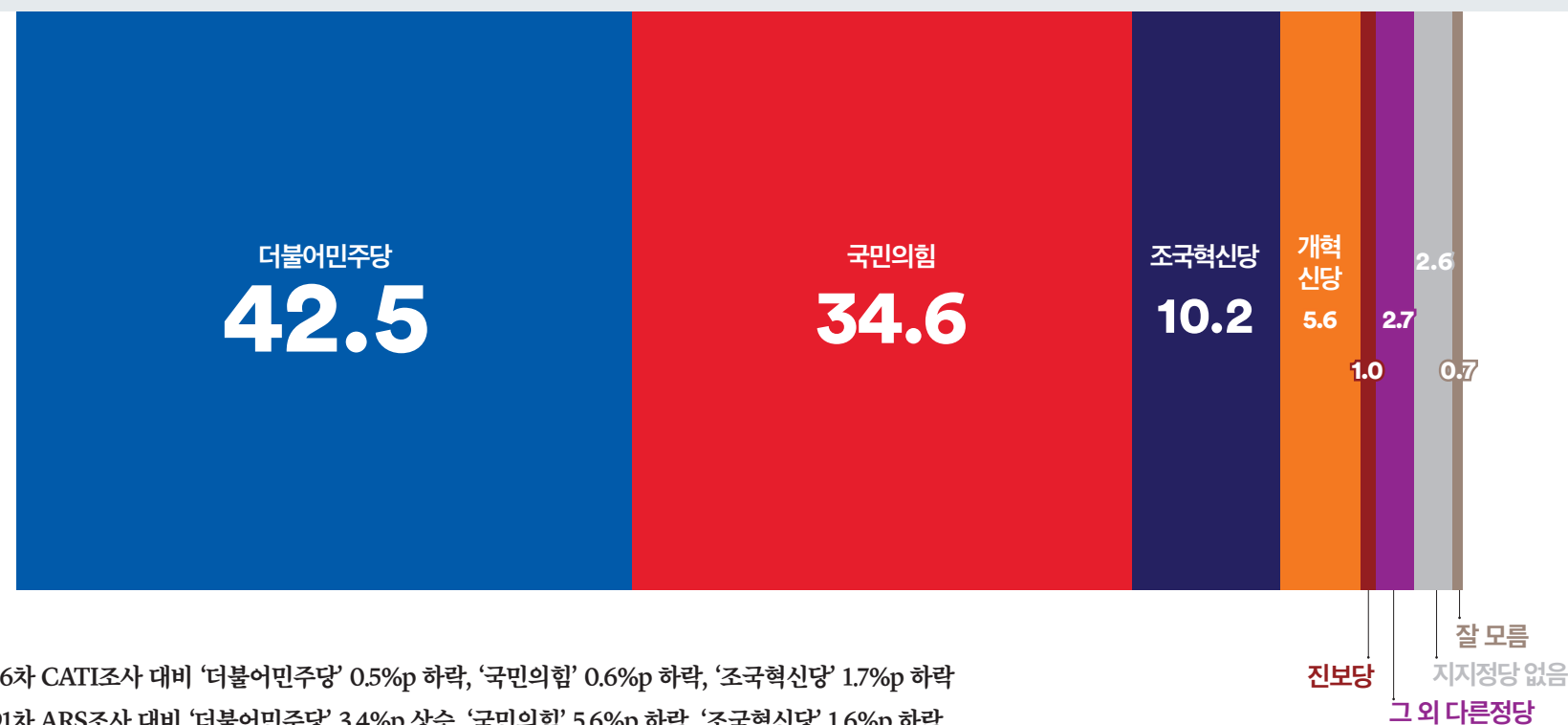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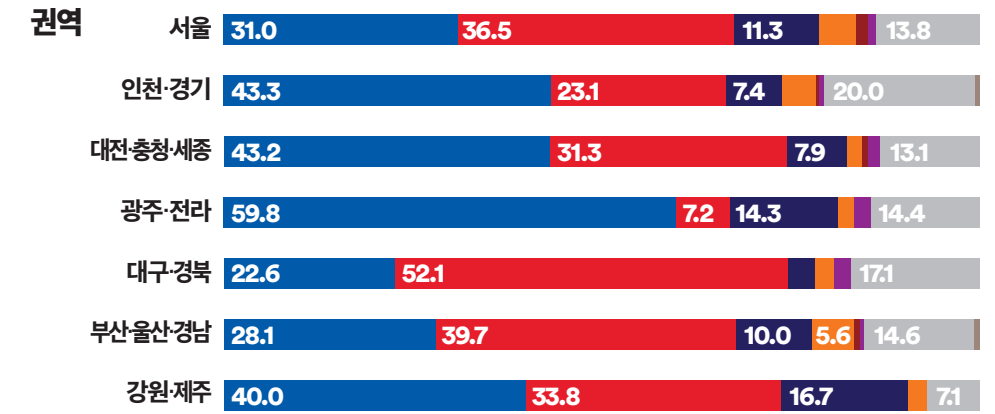


76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5%p 하락, '국민의힘' 0.6%p 하락, '조국혁신당' 1.7%p 하락  
 91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4%p 상승, '국민의힘' 5.6%p 하락, '조국혁신당' 1.6%p 하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7.5%p, ARS 7.9%p(지난주: CATI 7.4%p, ARS -1.1%p<sup>국힘 우세</su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16.8%p, ARS 18.1%p(지난주: CATI 18.4%p, ARS 10.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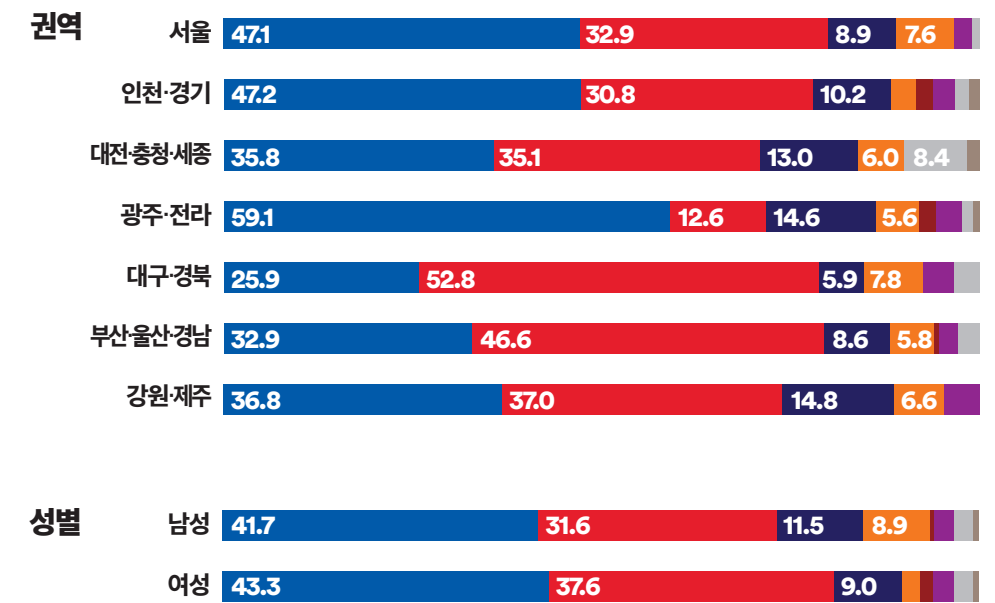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경인권과 호남권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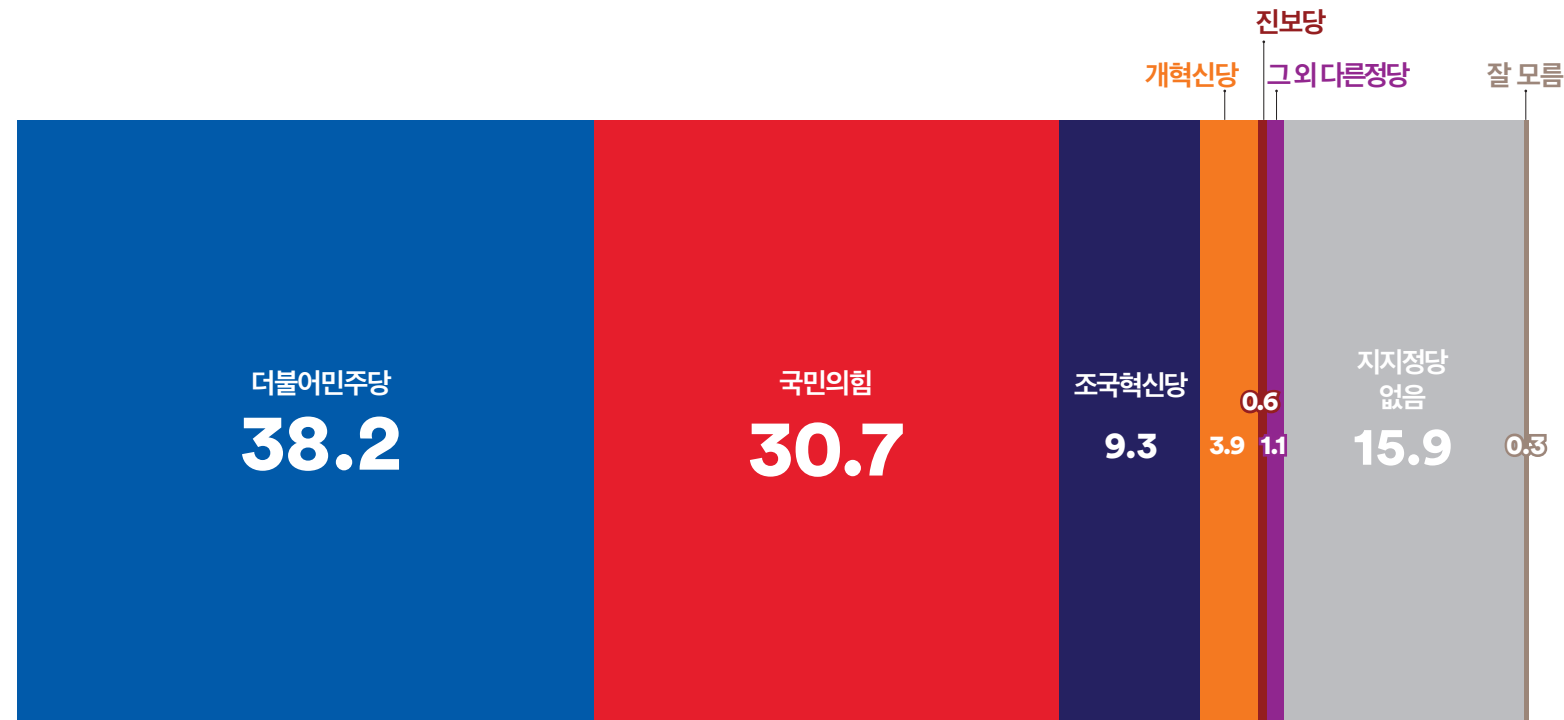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경인권 및 호남권에서 우세(CATI조사의 충청권, ARS조사의 서울권 포함)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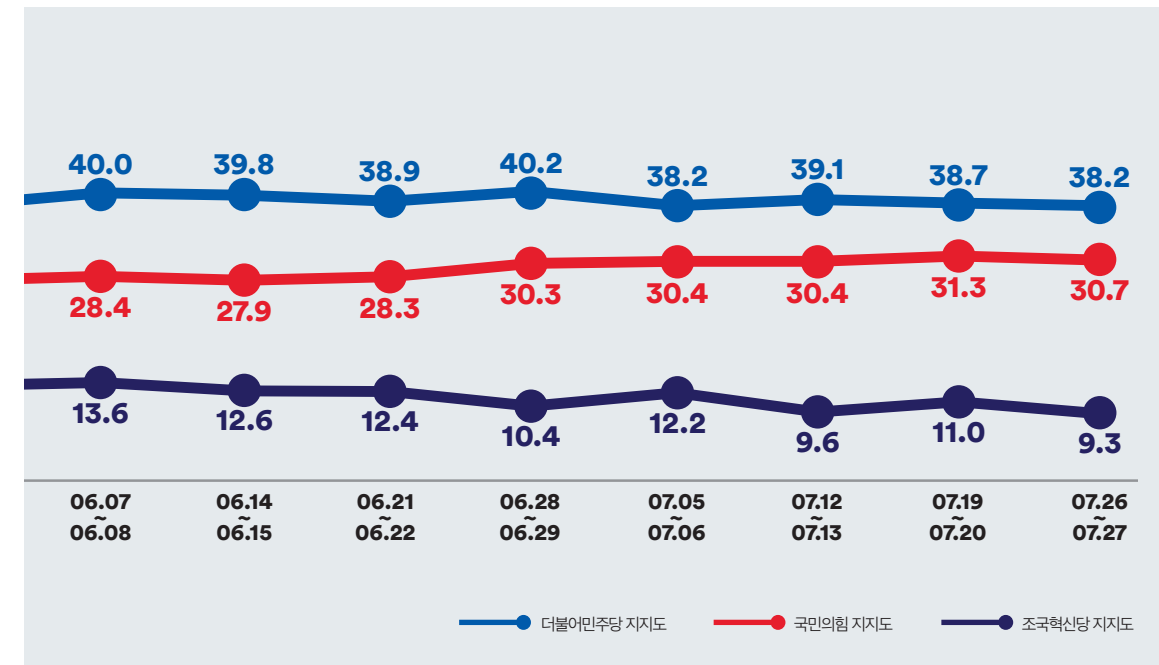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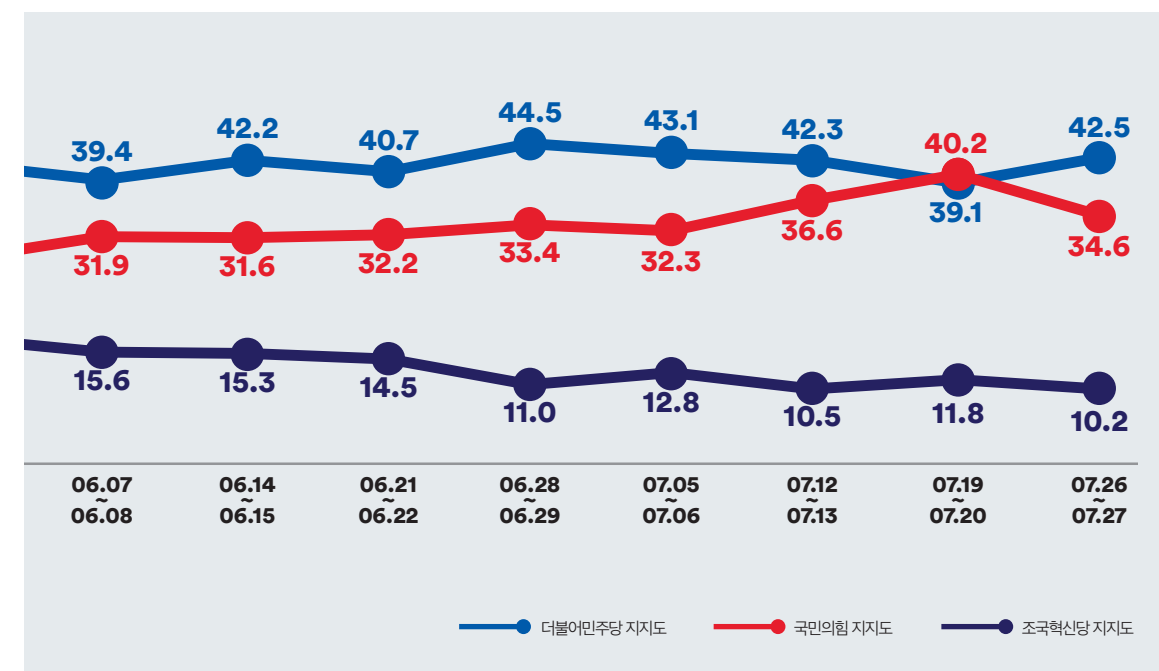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주차별  
정당지지도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0.6%, '국민의힘' 22.0%, '조국혁신당' 12.1%의 지지율을 보임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2.1%, '국민의힘' 30.2%, '조국혁신당' 13.0%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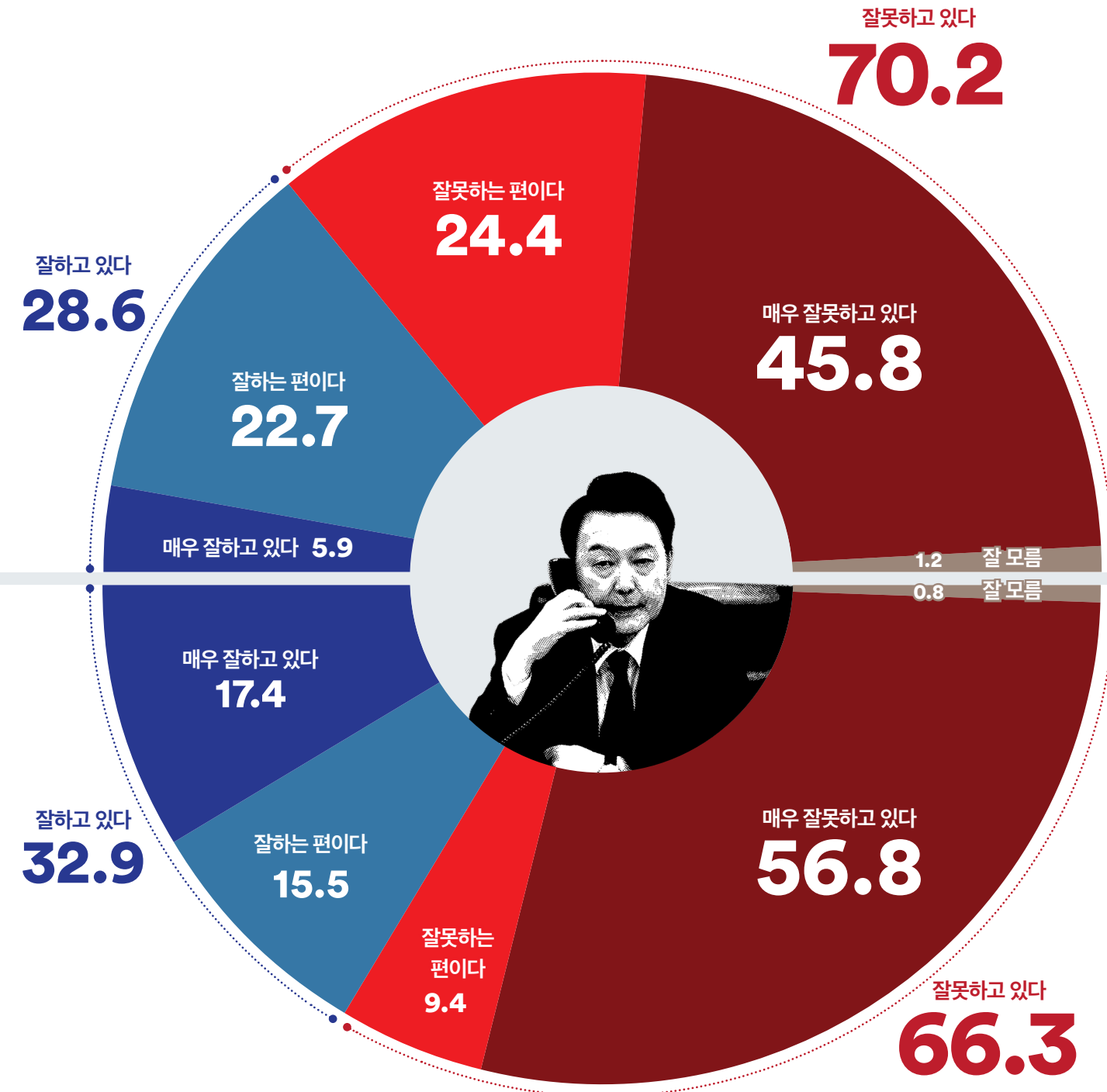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0.7%p(76차: 30.0%p), ARS 24.9%p(91차: 10.4%p)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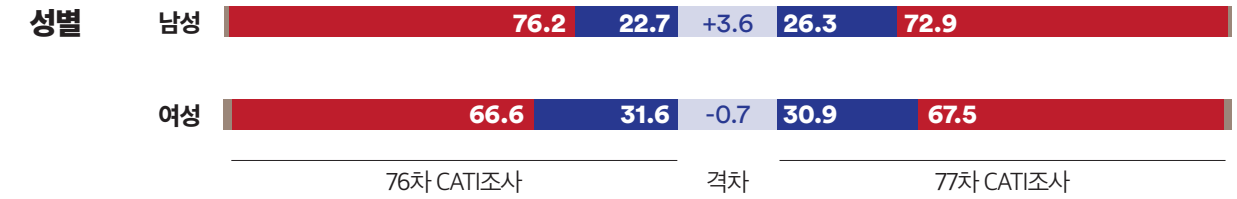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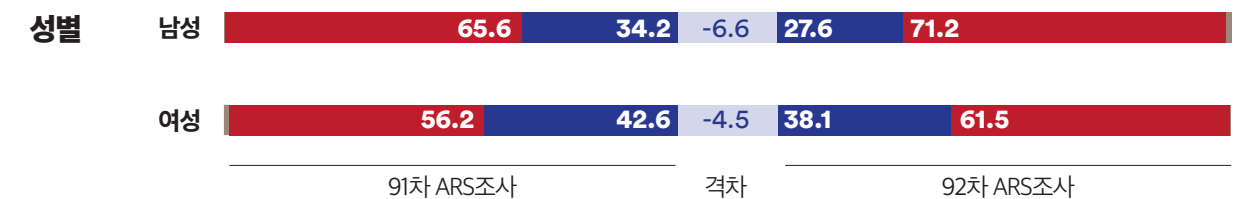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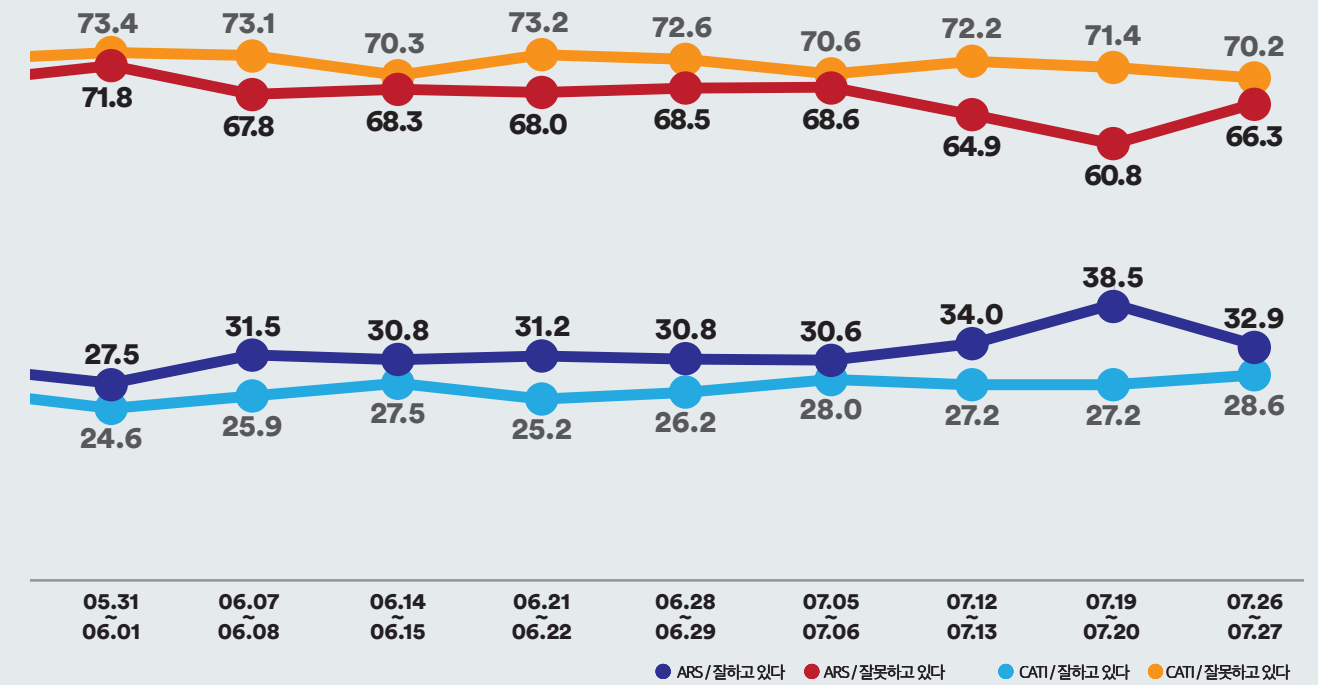
지난 76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14%p 상승, '부정' 평가 12%p 하락(격차 41.6%p)

지난 91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5.6%p 하락, '부정' 평가 5.5%p 상승(격차 33.4%p)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부정' 평가 앞서고, 남·녀 모두, 50대이하 연령층(ARS 60대 포함)에서 '부정' 평가 우세  
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58.3%p(지난 조사: 58.5%p), ARS 42.8%p(지난 조사: 25.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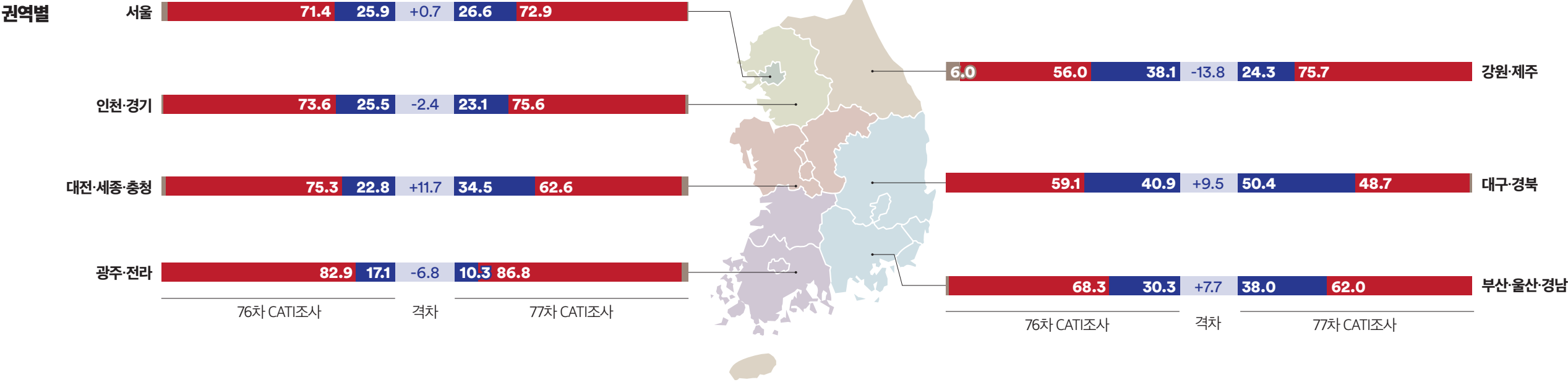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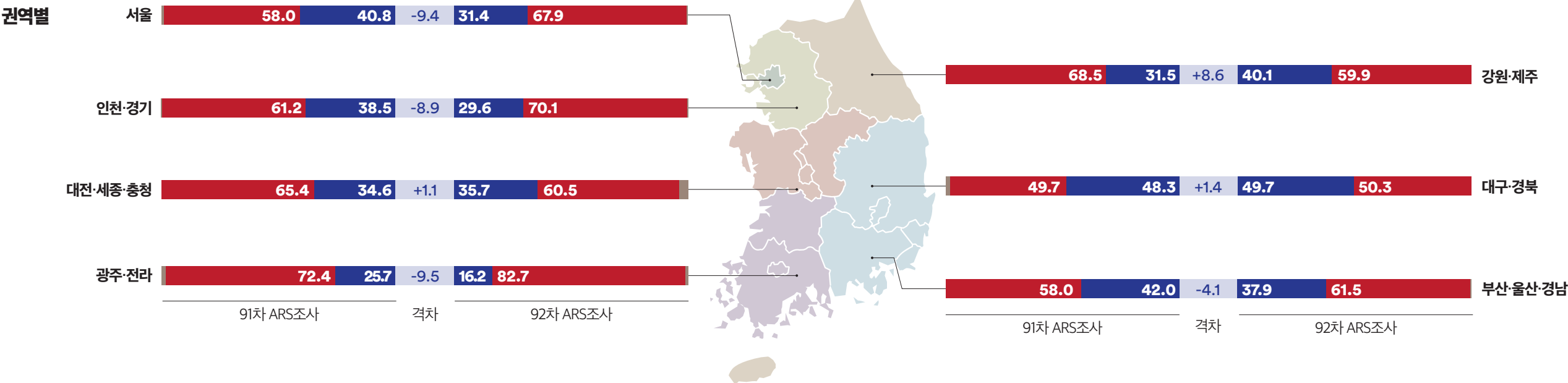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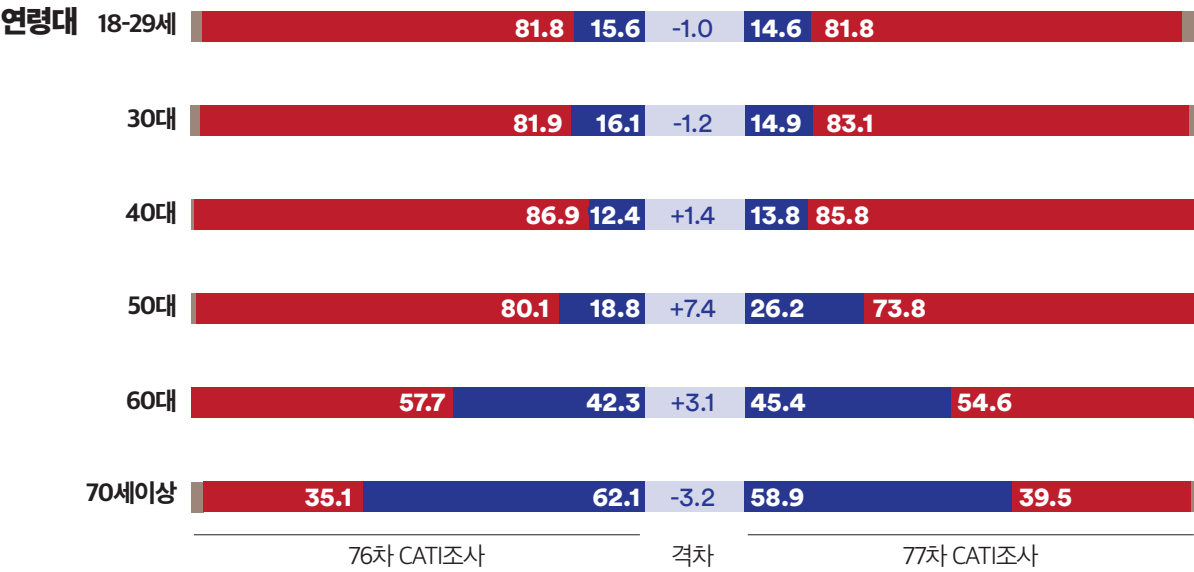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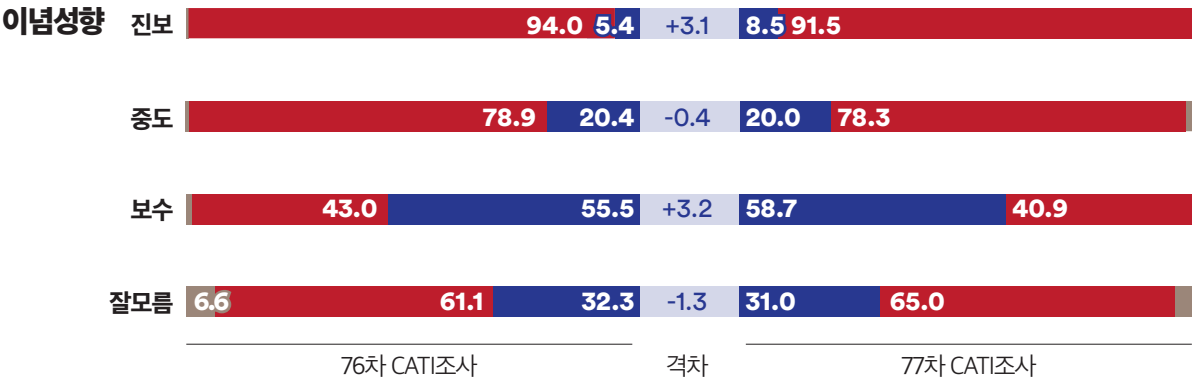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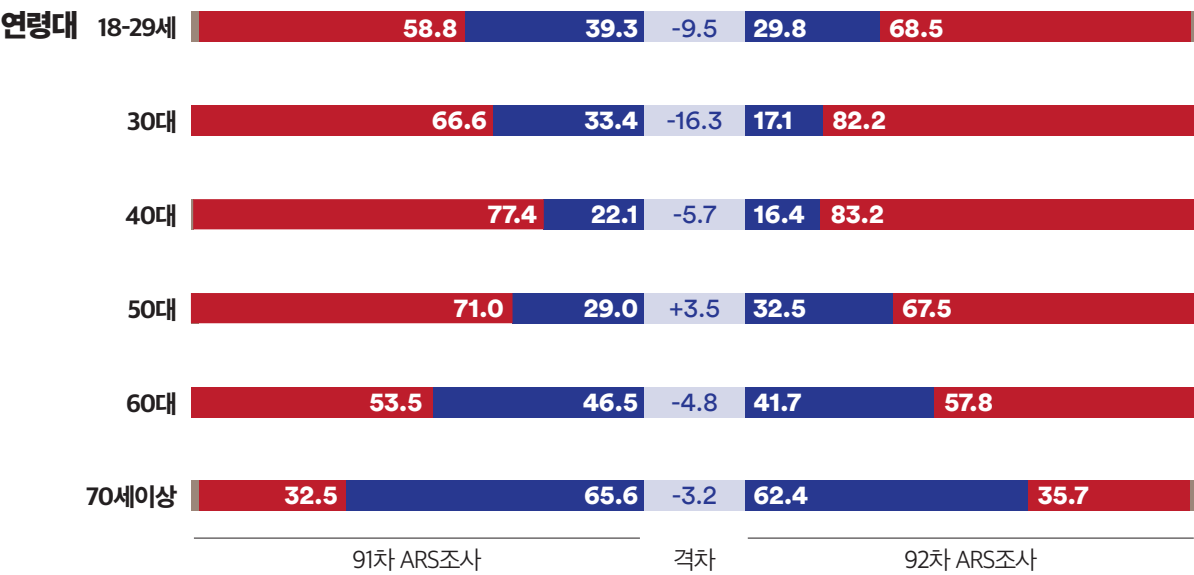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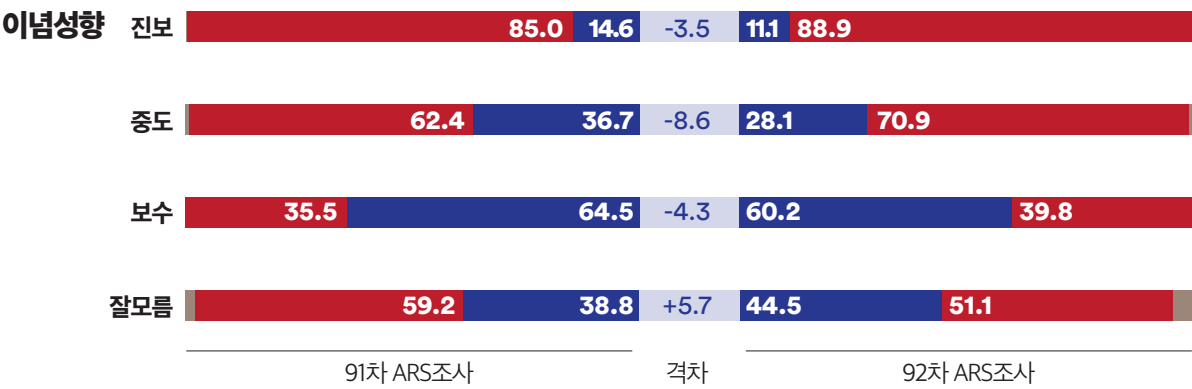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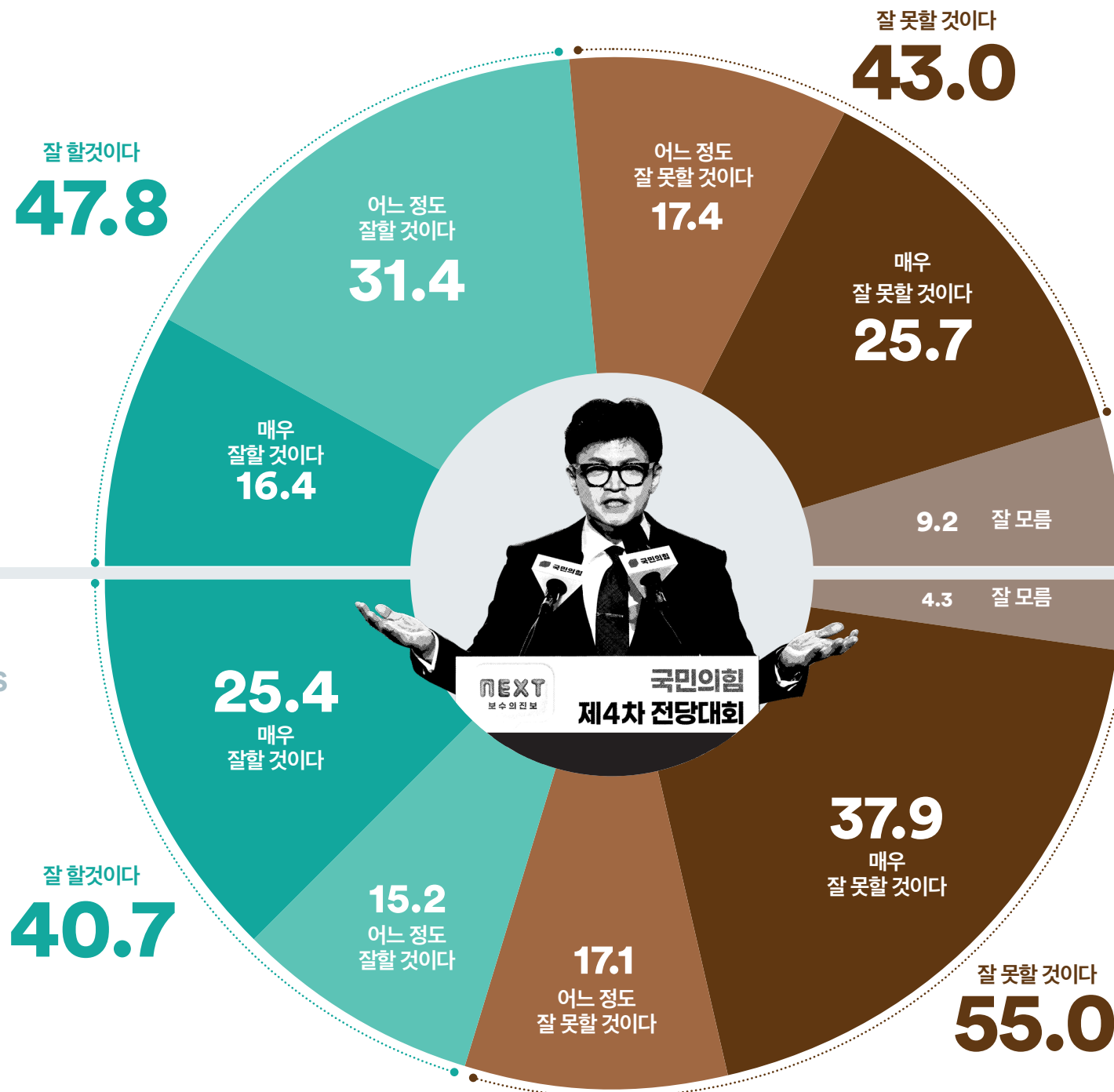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되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여당을 얼마나 잘 이끌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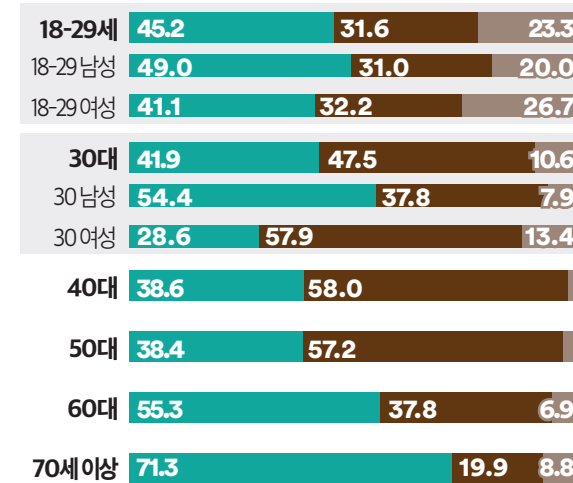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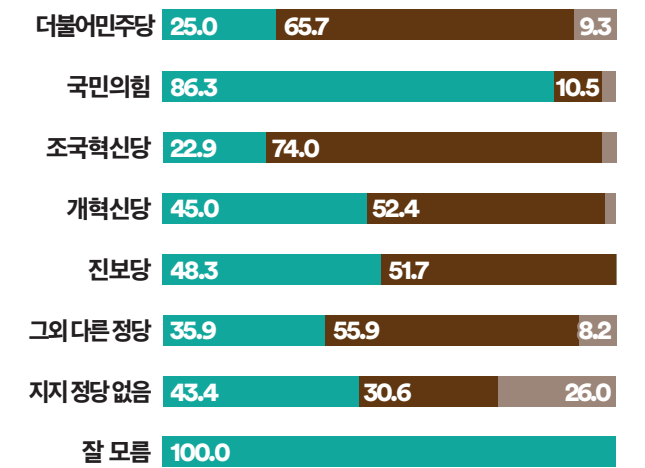


CATI 조사는 '잘 할 것'이란 응답이 앞서고(48%p), ARS 조사는 '잘 못 할 것'이란 응답이 우세(14.3%p)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잘 못 할 것', 국민의힘 지지층 및 보수층에서는 '잘 할 것'이란 응답 우세  
지지 정당에 없다고 응답한 계층에서는 '잘 할 것'이란 응답이 CATI 12.8%p, ARS 9.3%p 앞섬  
중도층은 '잘 못 할 것'이란 응답이 CATI 7.3%p, ARS 14.5%p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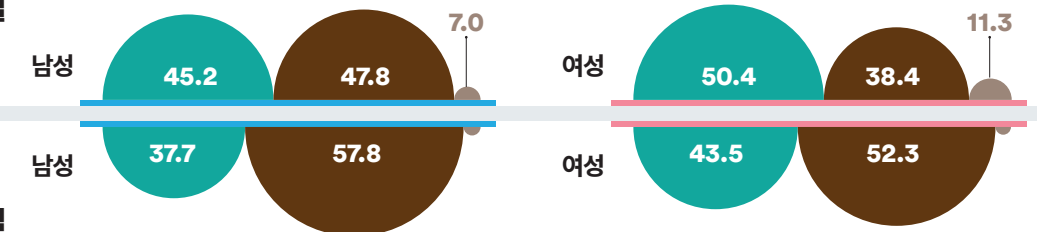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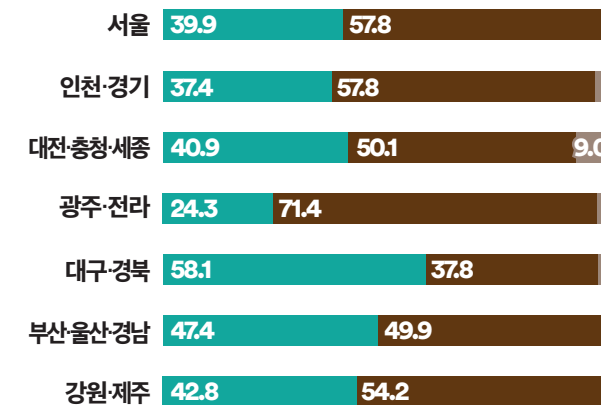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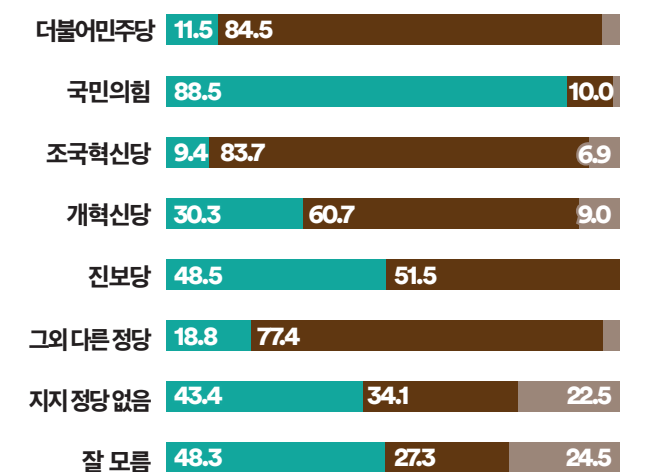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잘 할 것이다 잘 못 할 것이다 잘 모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적절성

Q.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행정역량을 갖춘 후보자”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법인카드 유용 논란 등을 근거로 “부적격 인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후보자에 대해 비난이 많지만 우리 천장을 뚫은 여성 언론인, 방통위를 새롭게 진작시킬 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이 후보자는 1986년부터 MBC에 입사해 30여 년 언론 현장에서 일했고 사장도 역임했다”  
“경영과 행정 역량을 갖췄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민주당

“대통령의 인사 기준은 바닥 밑 지하실에 있다”  
“매카시즘에 휩싸인 극우 유투버스러운 인사”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이 후보자는 아끼는 후배였지만 지금은 MBC 역사에서 부끄러운 사람 맨 꼭대기에 올라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재밌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적격한 인물이다

24.9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부적격한 인물이다

55.8

잘 모름

19.4

ARS

27.3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적격한 인물이다

58.8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부적격한 인물이다

14.0

잘 모름

두 조사의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적격한 인물’이라 답했으며, 응답 간 격차 역시 압도적 차이(CATI 30.9%p, ARS 31.5%p)를 보임

‘부적격한 인물’이라는 응답은 두 조사의 수도권과 호남권(CATI PK, 강원·제주, ARS 충청 포함)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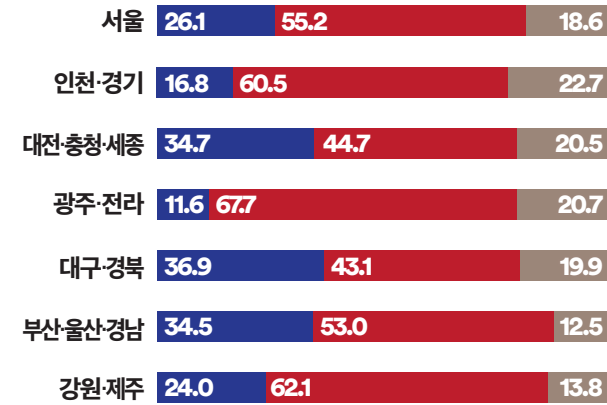
두 조사의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부적격한 인물’이란 응답 우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 진보층·중도층에서도 ‘부적격한 인물’이란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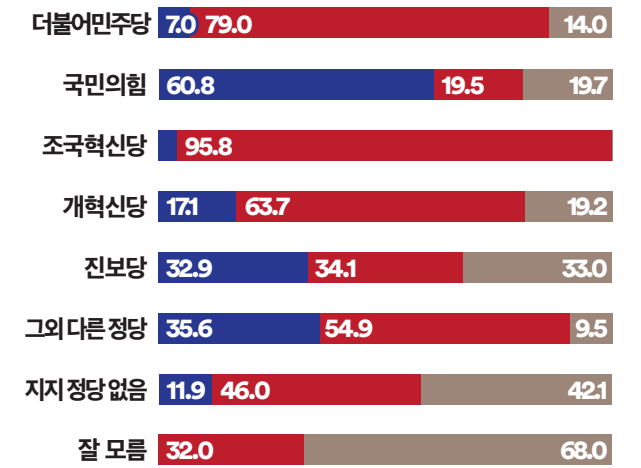
국민의힘 지지층 및 보수층에서는 ‘적격한 인물’이란 응답 우세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계층에서는 ‘부적격한 인물’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응답간 격차: CATI 34.1%p, ARS 22.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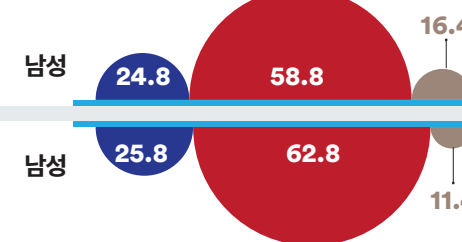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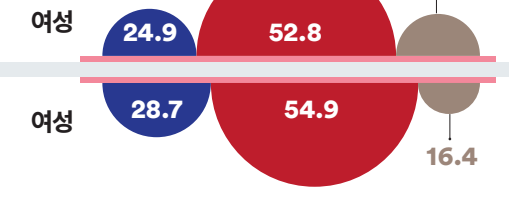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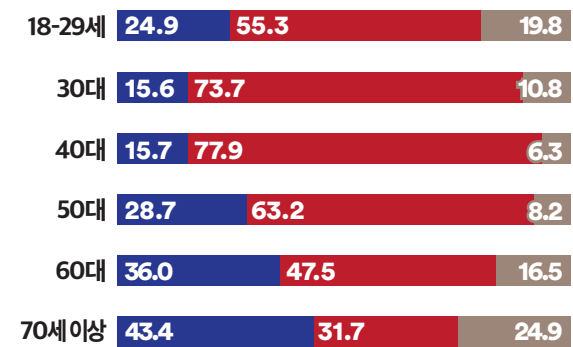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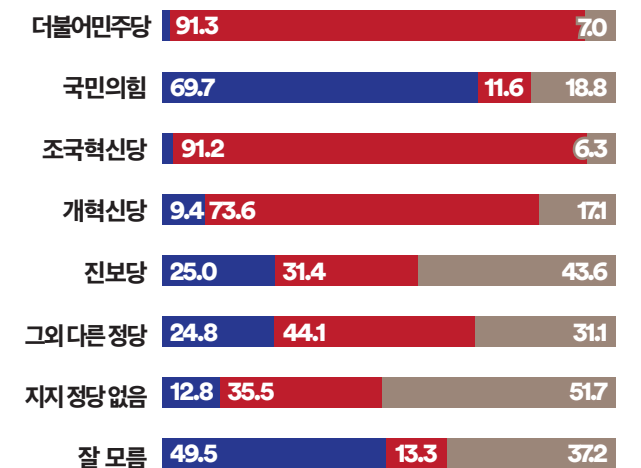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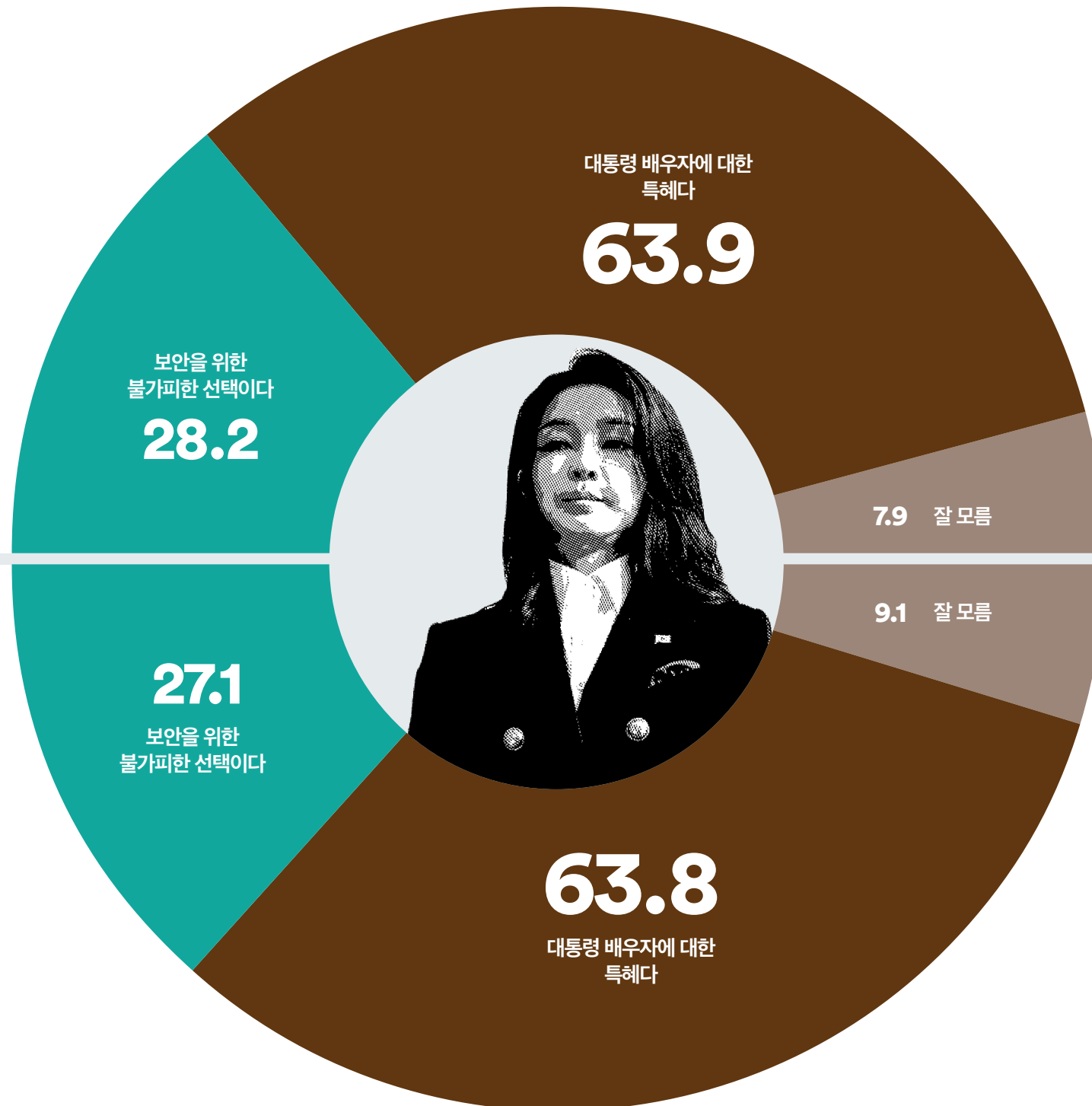


■ 적격한 인물이다 ■ 부적격한 인물이다 ■ 잘 모름

Q.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대통령 배우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담당 검찰관의 핸드폰, 신분증이 제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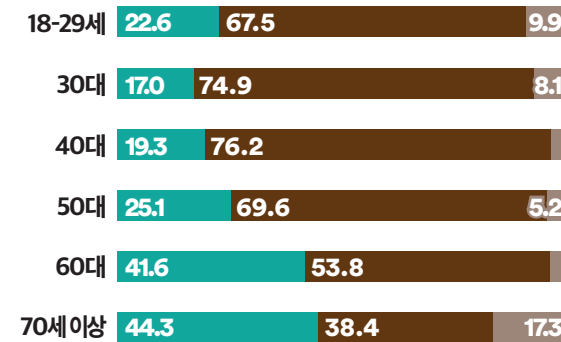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혜'라고 응답, 압도적 우세를 보임(격차: CATI 35.7%p, ARS 36.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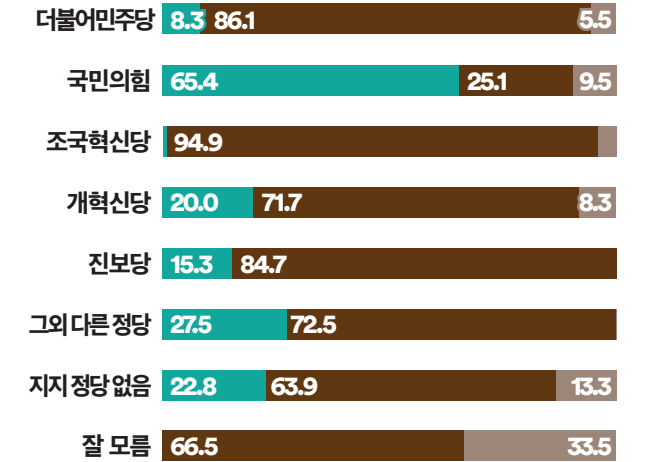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특혜'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특혜'라는 응답이 앞서고,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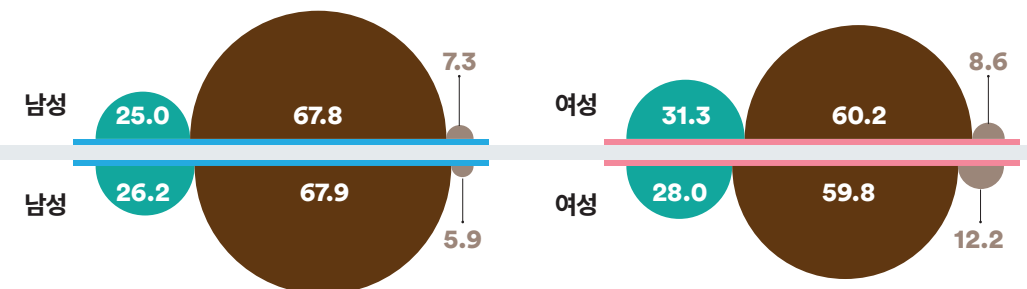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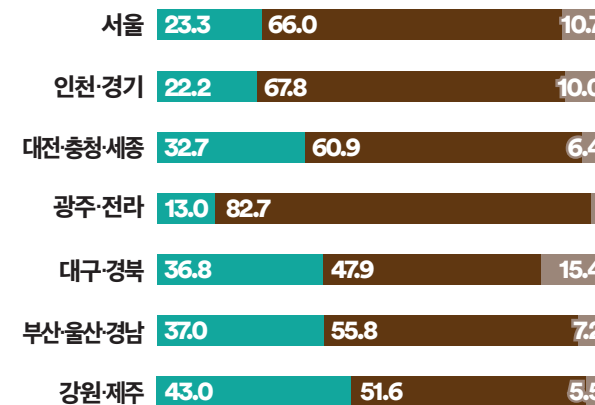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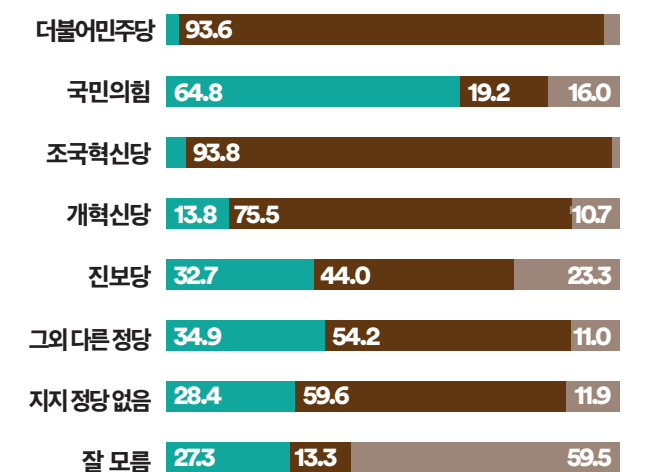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혜다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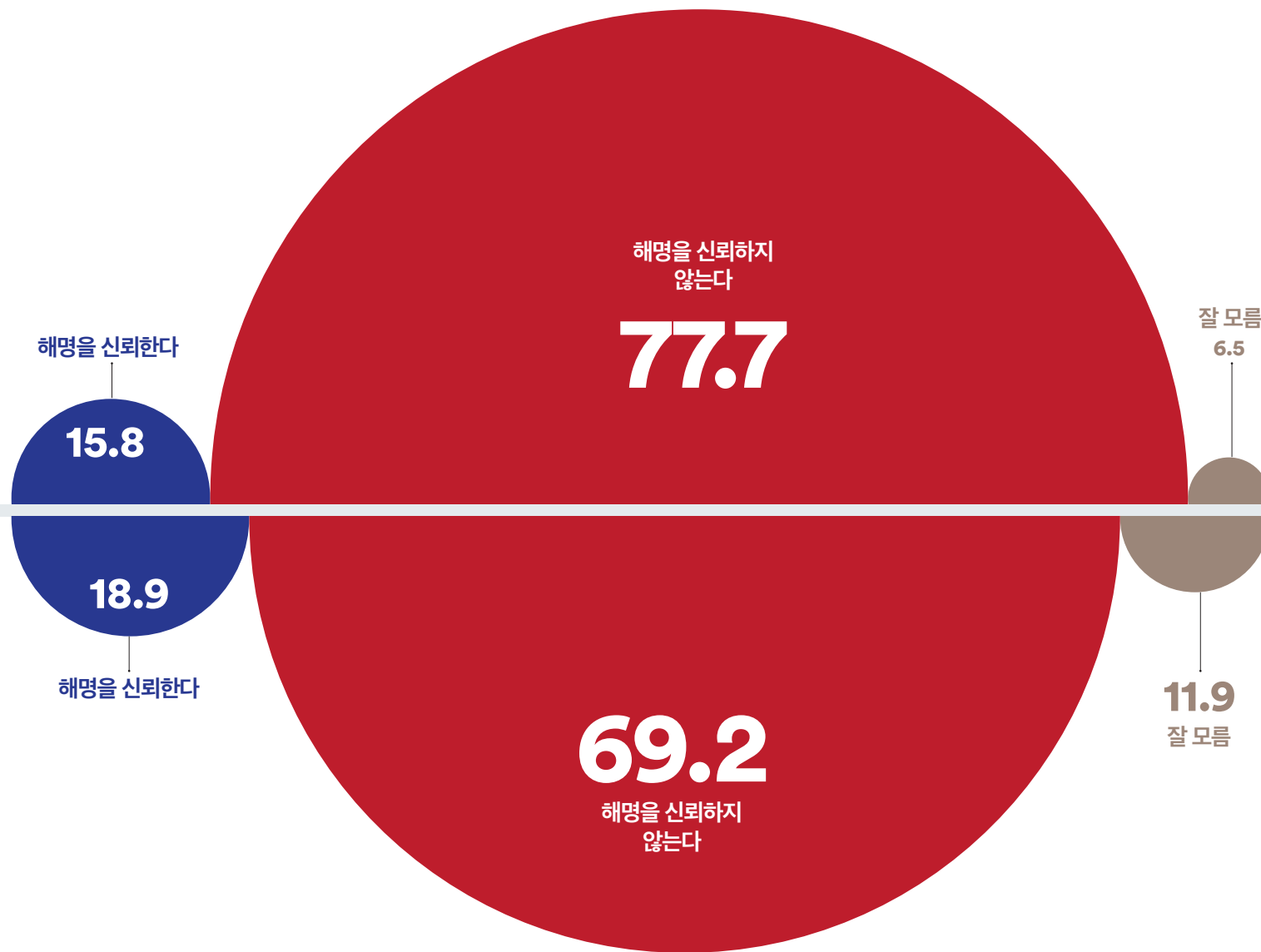


Q. 최재영 목사가 전달한 선물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측은 샤넬 화장품은 포장만 뜯었고, 양주는 폐기했고, 책은 실수로 버렸으며, 디올백은 반환지시를 행정관이 깜빡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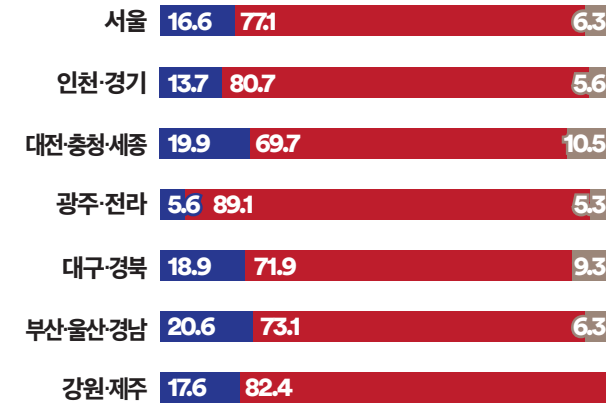
“미국의 할인매장 등에서 사온 것으로 인식했고, 성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받았다”  
“샤넬화장품은 최 목사가 아내가 준비했다는 말에 포장까지 뜯긴 했지만 쓰지 않았다”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에 포장 그대로 보관하게 된 것.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포장을 풀어 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다시 포장해 갖고 있다”  
“양주 등 선물들을 폐기한 것으로 안다”  
[ 최재영 목사가 전달했던 선물들에 대한 대통령배우자 김건희씨측의 해명 발췌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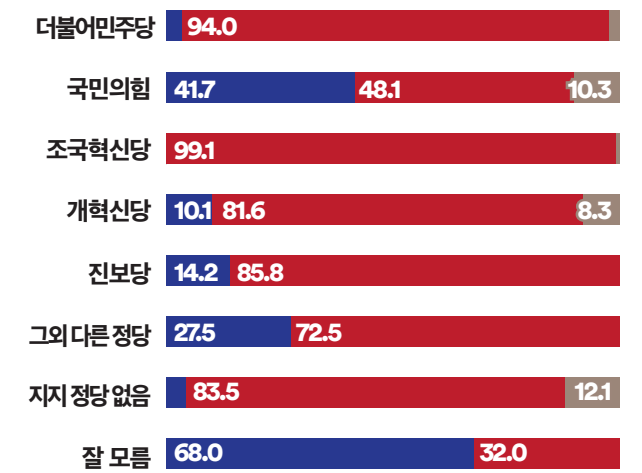


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 또는 이상은 ‘대통령 배우자측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보수층의 경우 CATI(신뢰 34.6%, 불신 55.7%), ARS(신뢰 32.0%, 불신 49.5%)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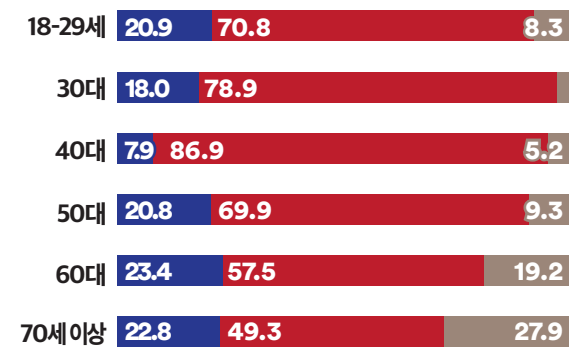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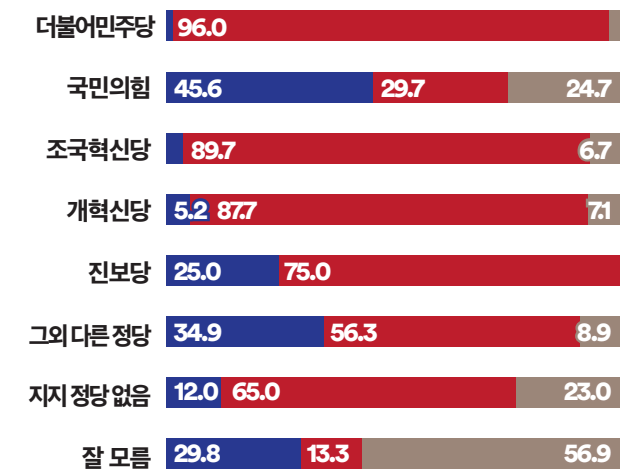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연령



정당지지도



■ 해명을 신뢰한다 ■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다 ■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WR\_202407\_05

---